항해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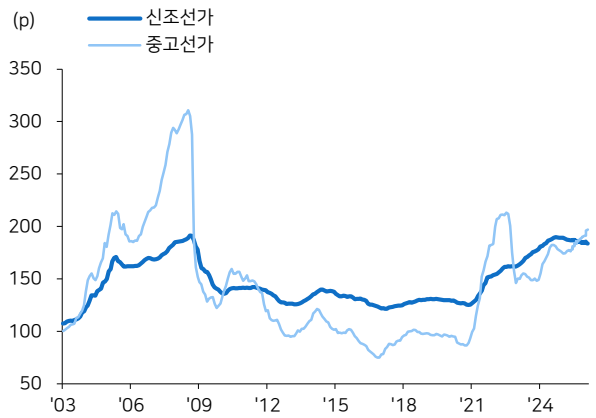
meritz 메리츠증권

2026. 2. 9 (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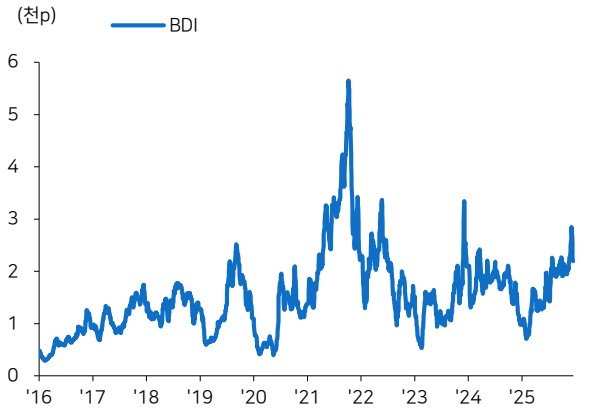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신조선가 183.7p (-0.6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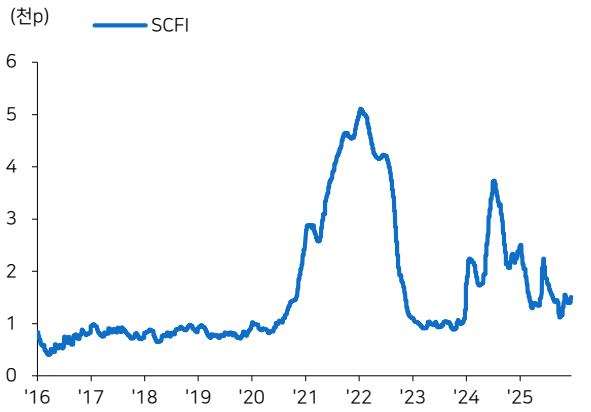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481.0달러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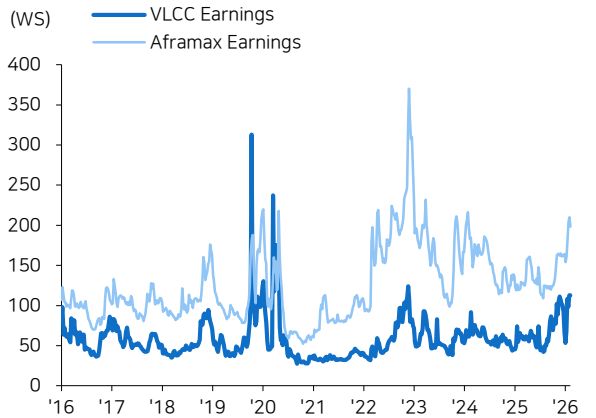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36.0p (-19.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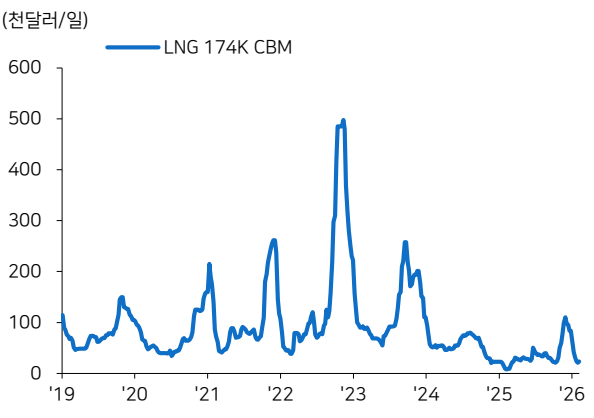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266.6p (-50.2p WoW)



VLCC Spot Rate 112.6WS (-0.1p WoW)



LNG Spot 운임 23.8천달러 (+2.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HD 현대重, 중동 최대 방산 전시 참가...사우디 호위함 수주 노린다 (한국일보) https://buly.kr/5JOYVeu

HD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 차기 호위함 사업 수주를 목표로 리야드에서 열리는 2026 국제방산전시회(WDS)에 참가해 함정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짐. 6,000톤급 수출형 호위함 HDF-6000을 포함한 8종의 함정이 전시되며, 사우디 해군 현대화 수요에 맞춰 이지스함급 성능을 갖춘 확장형 호위함으로 개발됐다고 보도됨. 사우디의 현지 생산 정책에 대응해 사우디 IMI 조선소를 활용한 현지 건조 및 MRO 확대 전략이 제시됐으며, 이를 통해 중동 핵심 방산 시장 내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전해짐.

"10 조 美 자주포 사업 따낼 것"...한화, 현지생산 승부수 (한국경제) https://buly.kr/FhPGVcq

한화그룹이 미 육군 자주포 현대화 사업 수주를 목표로 K9 자주포 · K10 탄약운반차 현지 생산을 추진하며 미국 내 공장 부지 선정과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전해짐. 자주포 · 탄약과 함께 조선 분야에서도 한화필리조선소와 오스탈을 거점으로 미국 동 · 서 · 남부 해안 전반에 생산 기반을 확장하고 있으며, 원자력잠수함 건조까지 염두에 둔 설비 · 인력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고 보도됨. 미 정부 방산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생산 · 밸류체인 내재화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방산과 조선을 연계한 미국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알려짐.

캐나다 "군사지원도 가능하냐"...韓, 잠수함 수주 난항 (아주경제) https://buly.kr/A470zcT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캐나다가 한국 측에 러시아와의 분쟁 발생 시 군사적 지원 가능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하며, 외교 · 안보 요소가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고 보도됨.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북대서양조약 5조에 따른 군사 지원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방위산업법상 전쟁 발생국에 대한 방산 수출 제한 가능성이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전해짐. 이에 따라 CPSP 입찰은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 · 안보 연계형 사업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는 독일이 다소 우위에 있다는 관측이 알려짐.

한화오션,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선 7 천 687 억원에 수주 (연합뉴스) https://buly.kr/APwWxSI

한화오션이 계열사 오션 윈드 파워 1로부터 7,687억원 규모의 대형 풍력발전기 설치선(WTIV) 1척을 수주했으며, 해당 선박은 2028년 상반기 인도돼 국내 해상풍력 프로젝트 투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됨. 이번 WTIV는 국내 최초로 15MW급 대형 해상풍력 터빈 설치가 가능한 최대 규모 선박으로, 중국 선박 의존도가 높은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구조를 국산 선박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례로 전해짐. 정부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정책 속에서 한화오션은 WTIV 건조 실적과 대형 · 고부가 특수선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계획으로 알려짐.

HD 현대마린, 에콰도르와 820 억원대 발전설비 정비계약 (SBSbiz) https://buly.kr/FhPGNr2

HD현대의 해양산업 설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이 에콰도르 전력공사와 5,600만달러 규모의 발전 설비 정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육상발전 단일 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보도됨. HD현대마린솔루션은 내년 초까지 4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 8기에 발전 엔진과 보조설비 정비 자재 패키지를 공급해 가뭄에 따른 전력난 완화와 설비 가동 안정화를 지원한다고 전해짐. 이번 계약을 계기로 에콰도르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및 향후 육상발전 플랜트 중심의 고부가가치 애프터마켓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성 제고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짐.

EU to introduce full maritime services ban on Russian crude to replace price cap (TradeWinds) https://buly.kr/31UhsJd

EU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폐기하고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제재 대상 선박을 640척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보도됨. 해당 조치는 EU 연계 선박의 러시아산 원유 운송을 사실상 차단해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추가로 압박하려는 목적이나, 그림자 선대 의존 확대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해짐. 시장에서는 해상 서비스 금지가 러시아 원유 수출 물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으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림자 선대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알려짐.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